

광주에 새 산단 3개 조성 추진

13개 산단 포화상태 ...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시급
금호타이어 등 대단위 공장 부지 필요 '로드맵' 마련

광주시가 대규모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에 나섰다. 광주지역에 조성된 13개 산단이 사실상 포화상태에 다다른 상황에서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과 공장 등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신규 산단 조성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전 논의가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 등 대단위 공장의 부지 수요 등을 고려해 광주시는 단일 산단이 아닌 최소 3개 이상의 복수 산단 조성 계획을 이번 기회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활용 가능한 공간을 사실상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어서 실제 산단 개발에 나설 경우 난항도 예상된다.

7월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달 25일 '신규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전까지 광주 산업단지 가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 하나씩 조성됐다면, 이번 작업은 (산단 개발이 가능한) 광주지역 전체를 놓고 20년 이상 장기적

관점에서 복수의 신규 산단 조성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며 "이는 광주시 개성 이래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광주시는 용역 과업지시서에서 ▲(가칭) 빛그린 2단지(314만㎡) ▲(가칭) 에너지밸리 2단지(327만㎡) ▲신용지구(광주연구개발특구 360만㎡) ▲대규모 공장 이전부지를 포함한 개발 적정지구 등을 예시로 들었다.

개별 산단 규모를 300만㎡(약100만평) 수준으로 하고, 단일 산단이 아닌 최소 3개 이상의 복수의 산단 조성 계획 수립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공장 이전부지를 포함한 산단개발 적정지구 발굴을 예로 든 것은 이전 논의가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등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광주시는 밝혔다.

광주시는 용역업체와 함께 공장용지를 비롯한 기업체 수요 등 광주지역 산업환경 분석을 거쳐 신규 산단 조성의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광주만의 경쟁력 있는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굴해 신규

산단에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신규 산단 후보지와 업종 등에 따라 국가산단·일반산단·도시첨단산단 가운데 어떤 형태로 개발하는 게 적절한지, 복수의 산단을 조성한다면 동시개발적으로 추진할지, 순차적으로 조성할지 여부도 용역 단계에서 검토된다.

용역업체는 용역 착수일부터 10개월 이내 지역경제 파급 효과와 입지별 개발 조건, 관례법령 검토 등을 거쳐 신규 산단 조성 타당성 조사 결과와 함께 신규 산단 조성 기본계획을 마련해 광주시에 제출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두고 산업 수요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 검토한 후 신규 산단 조성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에는 현재 ▲하남산단 등 조성 완료 산단 8곳 ▲빛그린산단 등 조성 공사 진행 산단 4곳 ▲조정 절차 진행 산단 1곳(첨단 3지구)이 있다. 이들 13개 산단 면적의 합은 3021만7000㎡(약 915만평)로, 이 가운데 첨단 3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산단은 신규 공장 유치가 불가능할 정도로 사실상 포화 상태라고 광주시는 전했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65개 일제 잔재물에 '단죄문' 설치



광주시가 지역 내 친일인사 잔재물 등 일제 식민통치 친일 잔재물에 대한 단죄문을 설치한다. 광주공원 사적비석군에 있는 친일인사 윤용렬 선정비.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시, 오늘 제막식 개최
친일 행적 철폐판으로 설치

광주시가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해 광주 지역에 산재해 있는 65개 일제 식민통치 잔재물에 대한 단죄문을 설치한다. 일제 잔재물에 대한 단죄문 설치 전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광주시는 8일 오전 11시 광주공원에 있는 일제 식민통치 잔재물에 대한 단죄문 제막식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제막식은 경과보고, 기념사, 단죄문 낭독, 일제 잔재물에 대한 단죄문 제막, 단죄문 설치 현상 순례 순으로 이어진다.

특히 제막식 국민의례에서는 평소애 부르는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일제 강점기에 독립군이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 랭사인'에 가사를 붙여 불렀던 '애국가'를 '꿈꾸는 예술단'과 함께 부른다.

광주시는 그동안 친일잔재 조사 기획팀(TF) 운영과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비석, 누정 현판, 교가, 군사·통치시설 등 65개의 일제 잔재물을 확인했다.

광주공원 사적비석군 가운데 윤용렬,

이근호, 흥남유 선정비, 원효사 송화식 부도비·부도탑, 사직공원 인근 양파정에 걸린 정봉현·여규형·남기운·정운수 현판 등이 친일 인사 잔재물이다. 또한, 군사 시설로 활용된 지하동굴, 신사침배를 위해 만들어진 광주공원 계단, 송정공원 옆 송정신사의 참계 등도 일제 잔재물로 남아 있다.

단죄문은 친일 인사의 행적이 검증된 기록을 적시하고, 일제 잔재 시설물에도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기록해 시민과 후대에 널리 알리고자 철폐판으로 제작해 설치한다. 광주시는 국·공유지에 있는 25개 일제 잔재물에 단죄문을 우선 설치하고, 사유지의 잔재물은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윤복현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장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일제 잔재물에 대한 단죄문 설치의 역사를 올바르게 기억하고 친일을 청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주인권평화 도시 광주는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오늘 입주 ... 연일 폭염에도 가을은 소리없이 온다
광주전남 대부분지역에 연일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7일 광주시 광산구 '광주시민의 숲 물놀이장'에서 어린이와 시민들이 물놀이를 하며 무더위를 날리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한전공대 설립 가속도 낼까

오늘 한전 제8차 이사회 ... 설립 기본계획 심의

한전공과대학 설립의 분수령이 될 한전 제8차 이사회가 8일 오후 2시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서 '대학설립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한전의 투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본계획안이 이사회를 통과하면 대학설립을 위한 학교법인설립, 캠퍼스 건축기본계획 확정 등의 후속 조치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전남도와 한전에 따르면 한전 이사회에는 김종갑 한전 사장과 이정희 한전 상임감사위원을 비롯해 5명의 부사장으로 구성된 상임이사 7명과 이사회 의장인 김태우 서울대 공과대학 명예교수 등 비상임 이사 8명 등 총 15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사회 상정 안건인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안'은 앞서 지난달 10일 열린 범정부추진위원회에서 확정됐다.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안에서는 오는 2022년 3월 부분

정부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략산업기반기금'을 활용, 설립비용과 운영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전남도와 나주시도 열악한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지역혁신 성장을 위해 1670억원 규모의 부지제공과 연간 운영비로 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한전의 적자 누적, 소액주주 반발 등으로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한전 측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설립기본 계획안이 이사회를 통과하면 오는 1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일 '백색국가서 한국 제외' 시행령 공포...관보 게재

일본 경제산업성은 7일 한국을 수출관리 대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이른바 '백색국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이 개정안은 이날 관보 게재를 기준으로 21일 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 등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오는 28일부터는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롭게 된다. 또 비규제(일반) 품목의 경우 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는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폐지하면서 그간 사용하던 수출상대국 분류체계를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군사목적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상대국을 이른바 '백색국가'로 분류하고 우대했다.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 있었다. 이번엔 2004년 지정된 한국이 15년 만에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가 되면서 26개국으로 줄게 됐다.

/연합뉴스



The 18th FINA
WORLD MASTERS CHAMPIONSHIPS

DIVE INTO PEACE

평화의 물결 속으로



제18회 2019 광주FINA세계마스터즈수영선수권대회
2019. 8. 5. - 8. 18. (14일간)
www.gwangju2019.com/masters



Official FINA Partners
arena Myrtha Pools SAMSUNG

National Sponsors
kt 광주은행 흥남수산업진흥원 ASIANA AIRLINES 서울신문 KIA 롯데제과 한국농림수산

Official FINA Suppliers
DURALEX Maloussen MIKASA PLANEW 신세계호텔 (주)신세계호텔 DB손해보험 ADPHEM PROGRESS

National Supporters
(주)세명여행 NHN 티켓링크 제일 예프앤에스 동원산업